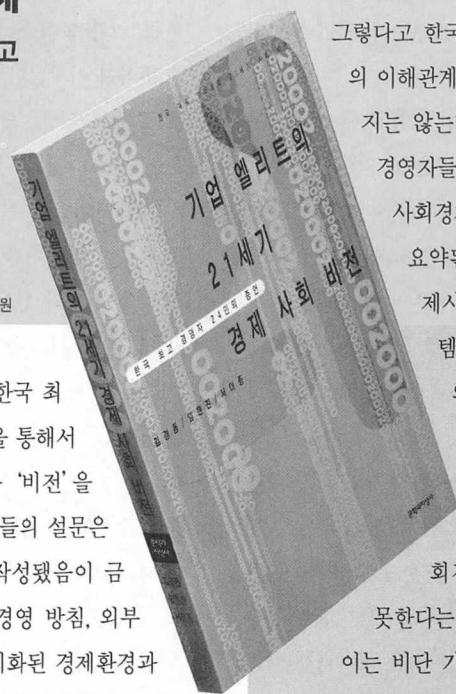


# 최고경영자들이 바라보는 21세기 한국경제

김경동 외의 《기업 엘리트의 21세기 경제 사회 비전》을 읽고

김대환 |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문학과지성사/A5신/298면/10,000원



요즘 지구촌 어디를 가나 21세기라는 화두가 단연 압권이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말뿐이 아니다. 마치 군사작전하듯 'D-몇일'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단지 새로운 세기(100년)가 아니라 새로운 밀레니엄(1000년)으로 시간대를 부풀린다는 점이다. 1백년을 넘는 것도 모자라 1천년을 훌쩍 뛰어 넘고 싶은 탓인가? 그다지도 빨리 그리고 멀리 오늘을 뒤로 밀어 져두고 싶은 것인가!

세기의 계산법도 참 이상하다. 우리와는 달리 꼬박꼬박 만(滿)으로 자기 나이를 계산하는 서양인들조차 2001년이 아닌 바로 내년인 2000년부터 새로운 세기, 새로운 1천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의'했다니 더 아리송해진다. 1년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오늘을 1백년 전, 아니 1천년 전의 과거로 돌리고 싶을 만큼 현실은 고해(苦海)던가?

##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미래인식

새로운 1백년이든 새로운 1천년이든, 오늘부터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살아있을 우리들로서는 단순한 21세기의 시작이 결코 도약일 수 없다. 아무리 잊고 싶고 아픈 오늘이라 하더라도 기계적인 시간으로 단숨에 청산은커녕 잊혀지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 바탕 위에서만 21세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가슴벅찬 새 세기의 비전이라 하더라도 현실인식의 토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최근 출간된 《기업 엘리트의 21

세기 경제 사회 비전 : 한국 최고 경영자 24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1세기'와 '비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저자들의 설문은 오늘의 현실을 기초로 작성됐음이 금방 눈에 들어온다. 기업경영 방침, 외부 기관의 역할과 기대, 국제화된 경제환경과 외국자본의 역할, 동아시아 자본주의 모델, 한국 외환위기의 해결방향 등의 문항들이 포괄하는, 크고 작은 설문 모두가 지극히 한국적인 현실에 바탕을 뒀다.

따라서 인터뷰에 응한 최고경영자 24인의 증언도 현실적이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실적 성취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칙에 찬성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에 회의적인 점도 그러하다. 기업규모의 대소에 따른 견해차이도 각각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지정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한 피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의식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들로부터 괄목할 만한 의식의 변화를 읽을 수 없어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고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한국 최고경영자들의 현실인식을 잘 드러낸다는 점이 이 책에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화가 우선해야

그렇다고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이 현실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책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들이 제시하는 21세기 한국 사회경제 비전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시스템, 효율적인 사회시스템,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의식의 변화다. 물론 이는 당위적 차원의 비전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때 한국 사회경제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긴요하다.

이는 비단 기업가의 바람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점이다. 여기서 '공감'은 그 실현가능성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한 경영자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양적 공격경영에서 질적 안정경영으로의 전환, 전근대적 준조세부담에서 고용·세금·임금을 통한 사회적 책임수행, 의사결정 구조의 유연화를 비롯한 기업체질 및 문화의 개선, 기술혁신 등을 들고 있는 점은 우리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불개입 쪽을 선호하는 젊은 기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의 경영자는 조정자 및 비전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등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사회경제를 지배해온 관료의 능력은 낮게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일치한다. 세계화의 대세는 인정하면서도 일말의 불안감 때문에 동아시아 협력기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낀다. 이 점들 역시 앞에서 말한 '공감'의 의미에서 눈이 가는 대목이다. ●